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⑰ 석굴암의 비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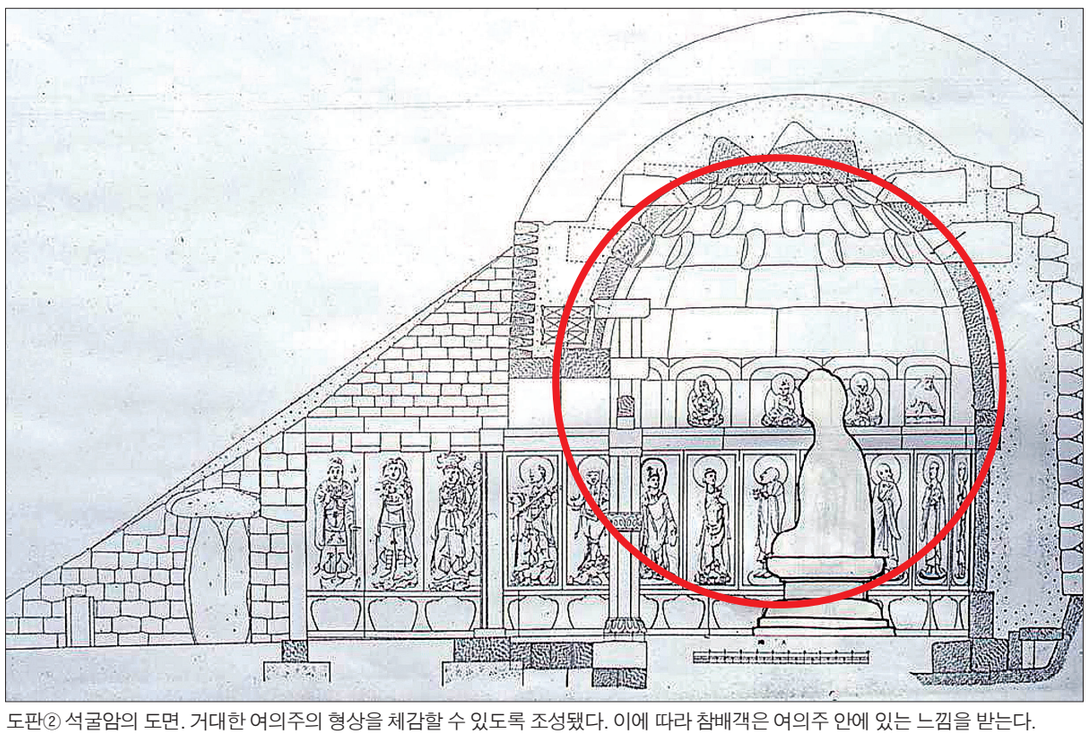
▶한줄 요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한국 대표 유산이다. 그 특징은 '원형'으로 조성된 것으로, 마치 여의주 안에 있는 느낌이 들게 축조됐다.

찬란한 여의주로 깨어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경주 석굴암. 석굴암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석굴암은 어떤 이유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 석굴암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걸까? 그 특징과 상징을 알아보도록 하자.



도판① 석굴암의 원형 법당과 천정의 모습.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한국 대표 불교문화유산이다.



도판② 석굴암의 도면. 거대한 여의주의 형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에 따라 참배객은 여의주 안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

영원불변 '돌'이라는 소재

먼저 석굴암은 건물이 전체가 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동해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경주 토함산의 사뭇 높은 위치에 건축됐다. 사찰 건물은 통상적으로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으로 만들어진 사각 형태의 건물이다. 그런데 석굴암은 화강암이라는 경도가 높은 돌을 깎아 만든 판테온이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 중앙아시아의 돈황 석굴, 중국의 운강 및 용문 석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굴 군(群)에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는 석굴암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석굴암을 보고는, 자신들의 것에 비하면 "코딱지 만하다"며 비웃기도 한다. 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기막힌 아름다움에 숨이 죽는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세계의 여타 석굴과 석굴암이 다른 점은 돌로 전체를 축조하였다는 점이다. 돈황, 운강, 용문 등의 석굴 군은 모두 산의 단면을 '파내어서' 만든 것이고, 석굴암은 100% 돌로 '축조' 를 했다는 것이다.

높은 산에 돌을 깎아 기초를 다지고, 기둥과 벽면을 세우고, 천정 역시 돔의 형태로 만들고 내부의 조각(부조와 환조)도 모두 그 단단한 화강암을 석공의 손으로 깨고 깎고 다듬어 만들었다. 돌을 사용해 전체를 장엄했다는 것은 애초의 조형적 의도와 발상에서부터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나무와 흙 보다 더욱 영구적인 소재를 통해, 영원불변한 진리의 모습(또는 공간)을 이곳 불국토에 창조하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서려있다.

둥근 '원형'의 사찰 공간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석굴암의 구조가 '원형(圓形)' 이라는 것이다. 석굴암의 입구인 전실(前室)은 장방형의 사각형으로 이 공간은 불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호법신의 공간이다. 그래서 전실에는 팔부중과 금강역사가 배치됐고, 이어지는 복도인 비도(扉道)에는 사천왕이 배치됐다. 팔부중, 금강역사, 사천왕 그리고 비도와 본 법당인 원실(圓室)이 맞물리는 곳의 제석천과 범천까지 조각돼, 내로라하는 호법신들이 총 출동하여 입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본체 건물에 해당하는 원실은 360° 로 둥글게 벽면을 세워 바닥이 동그란 원형 구조이며, 그 위의 천정 역시 둥근 궁륭 형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초창기 신전처럼 돔(Dome)의 형식을 띄고 있다. 궁륭 또는 돔의 형식이란 반구형(半球形) 모양의 둥근 천정을 가르킨다.

그런데 돔 형식의 둥근 천정을,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무겁고 단단한 화강암으로만 끼워 맞추어 만들어낸다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참고로 석굴암에 들어간 돌의 개수는 총 108개이고 사용된 모든 돌들은 못이나 접착제 등 이음 재료 없이 순수하게 돌로만 짜맞춰 축조된 것이다. 돌의 개수인 108은 108번뇌를 상징하고, 이는 딱 108개의 번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번뇌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즉, 뭇 번뇌를 모두 깨달음의 진리로 타파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다시 석굴암 천정 시공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둥글게 이것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의 고충을 겪었는지 알 수 있는 〈삼국유사〉의 글을 보도록 하자.

장차 석불石佛을 조각하고 큰 돌 하나를 다듬어 감개(龕蓋)를 만드는데, 돌이 갑자기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 (김대성이) 분하게 여기다가 어렴풋이 졸았는데 밤중에 천신이 강림하여 그것을 완성하여 놓고 돌아갔다. 김대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신이 사라진) 남쪽 산봉우리로 급히 달려가 향나무를 태워 천신에게 공양했다. 그래서 그 산봉우리 이름을 향령(香嶺)이라 했다.

–〈삼국유사〉 '효선 제9: 대성 효2세부모 신문왕대' 중에서

사찰을 건 둥근 '감개' 시공

삼국유사 속 석굴암 관련 내용을 보면, 석굴암 완성의 마지막 단계가 '감개' 를 덮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감(龕)' 이란 불상을 모시는 장 또는 궤를 말하고, '개(蓋)' 는 이것을 덮는 덮개를 말한다. 감개를 덮는 것을 화룡점정으로 약 27년에 걸친 석굴암은 드디어 완성을 보게 되는데, 이를 눈앞에 두고 감개가 세 조각 나버리니, 김대성은 망연자실한다. 하지만, 그 분함을 삭히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궁리의 궁리를 거듭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다. 이러한 김대성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 천신이 내려와 이것을 천정 한 가운데에 붙여놓고 갔다는 이야기이다. 즉, 그만큼 둥근 돔 형식의 천정을 완공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말이다. 석굴암의 감개는 거대한 둥근 연꽃 모양의 돌로(도판① 참조), 실제로 이러한 기록의 내용처럼, 세 조각 난 돌들이 이어 붙여진 모습으로 현재 천정의 한 가운데를 장식하고 있다.

> **세계유산인 석굴암, 韓 대표 문화유산**
> **석굴암 돌 개수 108개…'원형' 짜맞춰**
> **둥근 천정 · 본실, 전체 조감하도록 해**
> **마치 여의주 안에 있는 느낌 들게 조성**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냥 여느 사찰의 통상적 모습처럼 네모 낳게 방형으로 구획을 하고 세모 낳게 기와지붕을 올리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둥근 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었냐는 것이다. 그것도 평지도 아닌 높디높은 토함산 중턱에, 무겁디무거운 돌로 말이다. '토함산 중턱에 동해 바다, 특히 감포가 내려다보이는 곳' 이라는 석굴암의 특정적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원형' 이라는 건축적 특징의 비밀을 살펴보자.

석굴암 건축이 원형인 이유

이상, '원형의 법당과 원형의 천정' 이라는 석굴암의 핵심적 특징을 관찰하였다. 그렇다면 석굴암이 원형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당 한 가운데의 본존불 〈석가모니성도상〉은 당당한 양감(量感)으로 충만하다. 신성한 에너지로 넘치는 듯하다. 본존불 머리 바로 뒤 벽면의 작은 연꽃은본존불을 정면에서 올려다보았을 때, 두상과 겹치면서 두광(頭光)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하였을 때, 원형의 법당 자체가 본존불의 입체적인 광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도판①) 광배란 '깨달음의 빛' 을 조형화한 것이다. 본존불의 머리 위, 천정의 연꽃 감개 주변으로는 판돌을 가로 세로 엇갈리게 배치해, 마치 찬란한 빛줄기가 둥글게 퍼져나가듯 입체적인 연출을 했다. 본존상을 참배하노라면, 항마촉지인의 검지를 구심점으로 시작해, 카메라가 조각상 주변을 한 번 빙글 돌아 위로 올라가듯 시점이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저절로 전체를 조감하듯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여의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둥근 천정과 둥근 본실의 공간 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묘한 효과이다. 결국 거대한 여의주의 형상을 체감하게 되는데, 그 공간은 적적성성(寂寂惺惺)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초대형 '여의주'의 깨달음

이렇게 거대한 '여의주' 의 공간을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유는 '궁극의 깨달음' 을 나타내는 도상은 '여의주' 이기 때문이다. 궁극의 깨달음을 법신(法身) · 만유본체 · 진여(眞如) · 본각(本覺) · 일심(一心) · 참나 · 성품자리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는데, 이것의 이미지는 여의주에 비유된다. 그래서 다양한 예불문에는 '깨달음의 표상' 으로서의 '여의주' 에 대한 언급을 만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천수경〉의 '준제진언' 에는 "우차여의주(又此如意珠)/ 정획무등등(定獲無等等)"라고 하여 "이 여의주를 만난 이는/ 반드시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고 언급되었고, 의상대사의 '법성게' 에는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라고 하여 "둥글고 오묘한 법, 궁극적 진리의 모습이여/ 고요할 뿐 동작 없는 삼라만상의 바탕이여"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궁극적 깨달음의 모습은 둥근 여의주로 비유되는데, 이를 〈무량수경〉과 〈화엄경〉 등대표적 대승경전에서는 '여의주의 왕' 인 '마니보주' 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아직도 어깨와 허리힘으로 광택을 내시나요
광택은 쉽고 빠른 이지 골드로!!
이지골드 광택제는 닦기가 쉽고 광택이 오래 유지됩니다!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은, 동
놋쇠(방짜), 신주, 자동차 알미륨휠, 스테인레스, 모든 금속류

스텐, 알루미늄, 청, 법랑, 타일 등의
산화물 세척의 원조!!
ST-100V
에스티-백 브이

남자 소변기 요석제거에 탁월합니다!!



5분간격으로 3번 뿌리고 닦은 후 물로 세척하면 소변기 요석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영 일 상 사 010-5462-3620
영일상사 1호점 010-3495-5579
네이버 쇼핑
영일상사 1호점 검색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